MIRAE ASSET 미래에셋증권

Market Insight
2026.3.23

Mirae Asset Research AI

본 조사분석자료는 인공지능(AI) 기술을 사용하여 생성되었으며, 금융투자분석사의 감수를 받았습니다. 본 자료 마지막에 안내된 중요 내용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감수]
김주연
Jooyoun.kim@miraeasset.com

AI 데일리 글로벌 마켓 브리핑

이란 전쟁 확전 우려..나스닥 2%↓

- 미국 증시 주요 지수 일제히 하락: 나스닥 -2.01%, 러셀2000 -2.26%
- 이란과의 긴장 고조로 국제 유가 상승 압박 지속
- 인플레 우려 확산에 주요국 국채금리 상승

Summary

3월 20일(현지 시각) 미국 증시 주요 지수는 이란 전쟁에 미군이 추가 투입될 것이란 소식에 전쟁 장기화에 대한 우려가 커지며 하락 마감. 선물 옵션 동시 만기일이었던 이 날 다우존스 산업 평균 지수는 0.96% 하락한 45,577.47에 마감했고, S&P500 지수는 1.51% 하락한 6,506.48에 거래를 마침. 기술주 낙폭이 컸던 영향으로 기술주 중심의 나스닥 지수는 2.01% 하락한 21,647.61에 거래를 마쳤고 에너지 가격 상승에 따른 금리 인상 전망이 확산되자 금리 상승에 취약한 중소형주 중심의 러셀2000 지수는 2.26% 하락한 2,438.45에 거래를 마침. 이 날 하락으로 3대 지수는 주간 기준 2% 내외 하락으로 한 주 거래를 마쳤으며, 주요 지수 모두 4주 연속 하락 중.

이 날 WSJ 등 주요 외신은 미 행정부 관계자의 발언을 인용해 미군이 중동에 해병대를 비롯한 해군 수 천 명을 추가 파견하기로 했다고 보도. 장 마감을 앞두고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이란과의 휴전을 원치 않는다는 발언이 전해져 투자심리를 냉각시킴.

전쟁 장기화와 그로 인한 공급 차질 장기화 우려는 국제유가 상승으로 이어져 WTI 가 배럴당 100달러에 육박했고 브렌트유는 배럴당 110달러를 돌파함. 유가 등의 에너지 가격 상승은 결국 인플레 확산과 주요국 중앙은행들의 금리 인상으로 이어질 것이란 우려는 국채 금리 상승을 촉발. 미 국채 10년물 금리는 이 날 11bp 가량 상승해 심리적 마지노 4.3%를 넘어서 지난해 8월 이후 최고 수준 기록. 30년물 금리도 4.9%에 육박했으며 통화정책에 민감한 2년물 금리도 10bp 이상 상승해 3.9%를 상회함. 전일 통화정책 결정 회의 결과가 매파적 동결이라는 평가를 받았던 영국 역시 10년물 국채 금리가 2008년 금융위기 이후 처음으로 5%를 돌파.

한편 현지시각 21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이란을 향해 48시간 이내 호르무즈 해협을 개방하지 않을 경우 이란 발전소를 초토화하겠다고 경고했으며 이란군은 대변인 명의 성명을 통해 현재 호르무즈 해협은 완전 봉쇄되지 않았으며 이란의 발전소에 대한 미군의 파괴 위협이 현실화된다면 발전소의 완전 재건이 마무리될 때까지 호르무즈 해협은 완전히 봉쇄될 것이라고 맞섬. 다만 이와는 별개로 미국 인터넷 매체 악시오스는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종전을 염두에 둔 이란과의 회담을 위한 준비에 착수했다고 보도하기도. 이렇듯 전쟁 관련 이슈는 여전히 불확실성이 높은만큼 관련 이슈에 따른 시장 변동성도 당분간 이어질 전망.

(다우 -0.96%, 나스닥 -2.01%, S&P500 -1.51%, 러셀2000 -2.26%)

특징종목

업종별로는 금융과 에너지를 제외한 모든 업종이 하락. 유틸리티가 4%, 부동산이 3% 넘게 하락했고 기술과 통신 서비스, 소재, 임의소비재도 2% 안팎 하락. 시가총액 1조 달러 이상 거대 기술기업들도 일제히 하락.
AI 서버 기업 슈퍼마이크로컴퓨터 임원 3명이 엔비디아 AI 칩을 중국에 대량 밀반출한 혐의로 기소됐다는 소식에 관련 섹터 투자심리가 냉각. 슈퍼 마이크로 컴퓨터(-33.32%)가 급락했고 엔비디아(-3.28%)도 약세. 다만 슈퍼 마이크로 컴퓨터와 경쟁하는 델 테크놀로지스(+0.58%)는 반사 이익 기대감에 소폭 상승.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가 2.45% 하락했으며 브로드컴(-2.92%), 인텔(-5.00%), 마이크론 테크놀로지(-4.81%), AMD(-1.92%), 샌디스크(-8.08%), 웨스턴 디지털(-7.52%) 등 반도체 관련 섹터 전반이 약세. 다만 ARM(+1.95%)은 HSBC가 AI 서버 CPU 수혜 기업으로 구조 전환이 본격화되고 있다는 평가와 함께 투자의견을 '매도'에서 '매수'로 상향하고 목표가를 205달러로 제시한 가운데 강세.
물류 기업 페덱스(+0.77%)는 회계연도 3분기 실적이 예상치를 웃돌고 현재 분기 가이던스도 기대 이상으로 제시한 가운데 전일 시간외 거래에서 이어 소폭 상승 마감.
글로벌 태양광 인버터 전문 기업 솔라엣지 테크놀로지스(+13.29%)는 전일 제프리스에서 중동 분쟁 격화가 유럽 에너지 안보 역학을 자극할 것으로 본다며 투자의견을 상향한 가운데 실적 가이던스도 기대치에 부합하자 강하게 상승.
위성 이미지 기업 플래닛 랩스(+25.48%)는 4분기 실적이 예상치를 상회한데다 1분기와 연간 매출 가이던스도 시장 기대를 웃돌자 급등.
치폴레 멕시칸 그릴(+1.31%)은 미즈호가 동일 매장 매출 개선과 수익성 가시성을 긍정적으로 평가하며 '중립'에서 '시장수익률 상회'로 투자의견을 상향한 가운데 시장 대비 강세.

채권, 외환 및 상품 동향* 6시 10분, KST 기준

미국 국채 수익률은 인플레로 인한 금리 인상 가능성을 크게 반영하며 일제히 상승. 2년물 금리가 3.90%까지 10bp 이상 올랐고, 10년물 금리도 10bp 이상 급등해 4.3%를 상회. 만기가 가장 긴 30년물 금리 역시 10bp 이상 상승해 5% 레벨에 바짝 다가섬. 영국과 독일 국채 금리도 동반 급등해 영국 국채(길트) 수익률은 이 날 모든 구간에서 두 자릿수 오름폭을 기록했으며 10년물 수익률은 2008년 이후 최고치를 경신.

외환시장에서는 파운드화가 에너지 가격 급등에 따른 인플레 우려 속 재정 악화까지 더해져 약세를 보였으며 파운드 약세와 전쟁 격화에 대한 우려를 동시에 반영해 미국 달러화는 강세. 주요 6개 통화 대비 달러 가치를 나타내는 달러인덱스(DXY) 는 0.4% 상승한 99.64를 기록. 달러/엔 환율은 달러 강세와 엔화 약세를 반영해 159엔대 상회.

상품 시장에서는 국제유가가 중동 긴장을 반영해 상승. WTI 기준 2.8% 상승한 배럴당 98달러대에 마감했으며 브렌트유는 3.26% 상승해 배럴당 112달러를 넘어섬. 한편 금리 인상 가능성에 대한 베팅이 늘어나는 가운데 금, 은 등의 귀금속 가격은 지속 약세. 금은 이날도 0.67% 하락해 주간으로 9.6% 하락, 2011년 9월 이후 최대 주간 낙폭을 기록함. 은 선물도 온스당 70달러를 하회해 지난해 12월 이후 최저에 마감했으며 주간 낙폭은 14% 이상으로 3주 연속 하락세를 기록 중.

Compliance Notice

- 당사는 본 자료를 제3자에게 사전 제공한 사실이 없습니다.
- 본 자료는 외부의 부당한 압력이나 간섭없이 인공지능(AI) 기술을 사용하여 생성되었으며, 금융투자분석사의 감수를 받았음을 확인합니다.

본 조사분석자료는 고객의 투자에 참고가 될 수 있는 각종 정보제공을 목적으로 인공지능(AI)기술을 사용하여 생성되었습니다. AI가 생성한 본 조사분석자료에 수록된 내용은 정보 취득의 목적으로만 사용되어야 하며, 신중한 판단과 추가적인 검증을 권장합니다. AI가 생성한 조사분석자료는 자체 검증과정을 거쳤으나, 당사가 그 정확성이나 완전성을 보장할 수 없으므로 투자자 자신의 판단과 책임하에 종목선택이나 투자시기에 대한 최종 결정을 하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본 조사분석자료는 어떠한 경우에도 고객의 증권투자 결과에 대한 법적 책임소재의 증빙자료로 사용될 수 없습니다. 본 조사분석자료는 당사 홈페이지 https://securities.miraeasset.com 에서도 이용할 수 있으나 지적재산권은 당사에 있으므로 당사의 허락 없이 무단 복제 및 배포할 수 없습니다.